

# [세상보기] 대전육교를 랜드마크로 만들자

충남일보 | 승인 2021.09.16 11:00



남진근 대전시의원

랜드마크가 도시를 살릴 수 있을까? ‘3대 사기 유럽 관광’이라는 말이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인어 동상, 벨기에 브뤼셀 오줌싸개 소년상, 독일 라인강변 로렐라이 언덕을 말한다. 명성에 비해 가보면 실망을 금치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 곳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인어상은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 오줌싸개 소년상은 꼬마가 불길에 오줌을 싸서 도시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입혀져 관광 명소가 됐다.

로렐라이 언덕은 뱃사람과 요정의 전설 민요 덕분에 유명 관광지가 됐다. 로렐라이 언덕에 로렐라이의 전설이라는 스토리가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그곳을 가보고 싶다는 느낌이 없었을 것이다. 이 3군데 관광 명소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다.

한 도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랜드마크를 짓는 일이다. ‘랜드마크’(Land Mark)는 주위 경관 중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일컫는다. 한 국가나 도시의 얼굴이 되기도 한다. 잘 만든 랜드마크는 한 도시의 인지도를 단번에 높이고, 미미했던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세울 정도로 강력

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랜드마크를 만들려다 큰 예산만 낭비한 채 홍물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계 일류도시를 만들려는 랜드마크 프로젝트가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랜드마크는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일이다. 마천루가 각국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글로벌 인지도를 쌓기가 용이한데다 상업시설을 도입하기만 하면 바로 관광 소득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초고층 빌딩이라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한 도시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 말고는 없는 것일까? 뉴욕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유의 여신상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쯤은 잘 안다. 이집트와 그리스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또는 파르테논 신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영국의 빅벤·런던아이는 그 자체로 관광객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의 상징물이 됐다.

지난해 대전육교가 '고속도로 1호'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재됐다. 1969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국내 최고 높이의 아치 교량이었다. 순수 우리 토목기술로 제작되어 우리나라 근대 산업화의 상징으로 불린다. 대전육교는 준공 후 30여 년간 이용되다 2001년 확장공사로 폐도가 됐다.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로 꼽힌다.

지난 7월 대전육교는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1~2025년) 도로개선 사업 구간에 포함됐다. 대전시에서는 '비래동-와동간 5.3km 외곽도로 활용'과 '관광 자원화'를 놓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대전육교는 교량의 장대한 규모와 우아한 디자인이 주변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변 길치근린공원(옛 가양비래공원), 계족산, 우암사적공원, 동춘당 등 볼거리들과 연계한다면, 동구와 대덕구의 지역균형 차원에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과연 대전 육교를 대전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 방법은 없는 것일까?

<대전시의원 남진근>



충남일보 webmaster@chungnamilbo.co.kr